

존듀이 『예술론(Art as Experience)』에 제시된 ‘경험’ 의미 考察

김 기 수*

목 차

- I. 들어가는 말
- II. 경험의 의미
 - 1. 경험주의 철학의 배경
 - 2. 경험의 본질과 원리
- III. 경험과 자연
 - 1. 자연과의 연속성
 - 2. 직접적 질성
- IV. 예술 경험
 - 1. 하나의 경험
 - 2. 미적 경험
- V. 맺는 말

※ 주제어 : 음악교육철학, 듀이, 음악미학

* 한국교원대학교 초등음악교육 박사과정

I. 들어가는 말

인간이 그들의 삶 속에서 음악을 향유하는 존재라는 것은 다른 생물에게서는 찾아볼 수 없는 인간 고유의 특성이다. 음악적 향유는 단순한 유희의 차원이 아니라 그들의 본성과 삶의 모습, 그리고 소리의 미적 질을 다루는 예술 활동이다. 왜냐하면 인간은 예술을 향유함으로써 자신의 감정 순화뿐 아니라 정신의 고양을 추구하며 나아가 삶을 더 풍요롭고 아름답게 하는 가치 지향적 존재이기 때문이다. 그래서 철학자 쇼펜하우어(Arthur Schopenhauer, 1788-1860)는 예술을 일컬어 '인간이 낳은 문화적 산물 중에 최고의 산물'이라 하였고, 그 중에서 음악을 '예술 중의 꽃'이라고 하였다(이홍수, 음악교육의 현대적 접근, (서울: 세광음악출판사), p. 32).

음악이 인간에게 어떤 대상이며, 어떤 가치가 있는가는 고대 철학에서부터 논의되었다. 물론 철학적 관점에 따라 철학자들 사이에서 어느 정도 이견(異見)이 있으나, 음악이 인간 삶에 필수적이며, 그것이 인간을 가치롭게 한다는 견해는 자연주의(Naturalism), 이상주의(Idealism), 실재주의(Realism), 프래그머티즘(Pragmatism)¹⁾ 모두 공감하고 있는 부분이다. 그 중에서 음악을 인간이 경험하는 삶과 밀접하게 관련시키고 있는 것이 프래그머티즘이다. 프래그머티즘 대표적인 철학자인 존듀이(John Dewey, 1859-1952)는 인간의 삶의 고통, 부담, 긴장, 기쁨 등을 예술에서의 리듬에 속한다고 보고, 예술을 경험으로서의 예술로 보는 미학적 관점으로 자연과의 연속성을 회복하려고 하였다. 이로써 예술은 인간으로 하여금 삶의 질과 의미에 대하여 깨닫게 해주며, 인간은 삶 속에서 예술을 경험함으로써 삶을 보다 풍요롭게 한다는 예술교육의 필요성을 역설하고 있다.

음악은 예술의 한 장르로서 인간의 삶과 결부되어 있으며 문화 창조의 근

1) 프래그머티즘이라는 용어가 우리나라에서 실용주의로 번역되면서 그 개념의 이해에서 오해가 많다는 것이 존듀이 연구 학자들 사이에서 지적되고 있다. 그래서 이런 오해를 줄이기 위해 프래그머티즘이라는 원어를 그대로 사용하자는 주장이 있고 있다. 그래서 본고에서는 프래그머티즘이라는 원어를 그대로 사용한다.

원을 이루는 존재로서 그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 왜냐하면 음악이 단순한 소리로만 구성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그 내면에는 인간의 본성과 삶의 모습, 그리고 소리의 미적 질을 담고 있기 때문이다. 즉 음악은 인간의 정신과 감정, 자연 속에서 삶의 모습, 그리고 미적 질을 다루고 있는 소리의 조직으로 이루어져 있다고 말할 수 있다. 다시 말해서 인간은 음악을 창작하기도 하고 창작된 음악 작품을 향유하기도 하며, 그들의 문화를 계승하고 발전시키는 예술적 존재이다.

그러면 인간의 삶과 자연의 연속성과 문화 창출의 근원적 요인은 무엇인가? 물론 이러한 물음에 대한 주장은 위의 여러 철학적 관점에 따라 서로 다른 주장이 나올 것임은 분명하다. 왜냐하면 인간이라는 존재를 어떻게 보느냐에 따라 그 주장이 다를 수 있기 때문이다. 사실 이러한 이견은 철학적 흐름이 대변하고 있듯이 각 시대의 특수한 시대적 상황과 그들의 삶에서 제기되는 중심 문제들과 관련하여 발생하고 있음을 엿볼 수 있다.

따라서 본 연구는 인간의 일상 삶과 경험의 연속성을 통하여 예술에 접근함으로써 예술을 일상 삶에서 그 의미와 표현을 찾고자 하였던 존듀이 『예술론』을 중점으로 하여 그의 철학적 기반과 경험의 본질과 원리들을 살펴보고, 그가 예술에서 말하려고 하는 경험이 과연 무엇을 의미하는가를 고찰하고자 한다. 이러한 고찰은 그의 철학의 핵심인 경험을 이해하는데 도움을 줄뿐만 아니라 그의 철학의 정점을 이루는 미학(aesthetics)을 이해하는데도 도움을 준다. 아울러 음악교육에서 강조되고 있는 음악 경험의 의미, 음악 경험의 발생, 그리고 그것이 하나의 의미를 갖는 완성된 경험과 미적 질을 경험하게 하는 미적 경험을 이해 가능하게 한다. 또 한편으로 음악 경험이 인간의 삶에서 어떤 의미와 가치를 가지는지를 적게나마 이해하게 될 것이다.

II. 경험의 의미

1. 경험주의 철학의 배경

1) 철학적 기반

20세기 대표하는 프래그머티즘 철학자 존듀이는 그의 방대한 연구들이 철학만이 아니라 교육학, 심리학, 사회학, 미학에 걸쳐 두루 영향을 끼쳤다. 1859년에 버몬트주에 벌링턴의 한 중산층 가정에서 태어난 그는 대학원에서 헤겔의 철학을 추구함으로써 철학도가 되는 결정적인 동기가 되었고, 다윈(Charles Darwin, 1809-1882)의 영향을 받아 그의 철학적 성격을 생물학적 착상으로 전환시켰으며, 제임스의 영향을 받아 감상주의적 프래그머티즘을 실험주의로 개조하면서 듀이 철학의 대성을 이루게 되었다. 듀이 철학은 대성까지 3단계의 발전 시기를 거친다(Zeltner, 1975, p. 1). 첫 번째 단계는 『논리학 연구』가 출판된 1903년까지인데 이 시기는 듀이의 수많은 관념들이 싹튼 형태를 포함하고 있고, 두 번째 단계는 듀이의 사상들을 도구적 논리학과 가치론 및 교육적이고도 사회적인 철학으로 간주하게 만들었으며, 마지막 단계는 절정의 시기로서 1925년 『경험과 자연』의 출판을 기점으로 하여 듀이는 이전의 관념들을 변경 수정하고자 시도한 단계이며 또한 『예술론』을 저술함으로써 듀이 철학의 완성을 이룬 단계이다.

이러한 발전 단계를 걸쳐 나타나는 그의 철학 흐름과 변화의 과정에서 나타나는 특징을 대략적으로 살펴보자(오병문, 1983, pp. 13-20).

첫 번째 시기는 사변적 철학에 관심을 가진 단계로, 첫째, 헤겔 철학의 연구를 통하여 존 로크가 근대 철학의 경험론적 전통에 뿌리를 내린 경험과 자연의 이원론을 버리게 하였다. 듀이가 말하는 경험은 자연의 사건의 일부이며 분리된 존재양식이나 존재영역도 아니라는 것이다. 경험은 자연 속에서(within) 일어나며 자연에 대한 것(for), 즉 자연은 경험 속에서 불완전하게

드러난다고 하는 자연주의적 형이상학(naturalistic metaphysics)적 입장을 띠고 있다. 둘째, 사상이 역사적 과정에 관여한다는 것이다. 사상이란 역사적 과정에서 어떤 결과를 유효하게 낳도록 하는 관여이며 사건의 진로를 형성하는 효과적인 요인이 되고 또한 사상은 차이를 낳는다는 것이다. 헤겔이 하나의 역사적 과정을 정-반-합의 발전으로 보는데 반하여 듀이는 사고의 과정을 회의(doubt)-탐구(inquiry)-회답(answer) 과정의 경험이라고 하였다. 듀이는 헤겔 철학 연구함에 따라 사상의 기능이 어떤 고정된 현실에 관한 사상에 선행하는 이 현실을 밝히는 것이 아니고 이 현실을 만들어 내는데 참여한다고 하는 사실에 확신을 가지게 되었고 고전적 경험주의자들이 자연과 지식을 실체, 물질, 정신이라고 하는 불변하는 존재라고 보는 입장에 반대하고, 헤겔과 같이 자연과 지식을 역사 문화 과정, 변화, 생성과 같은 범주 속에 넣고 생각하였다. 셋째, 모든 의미 있는 사상은 사회적 성격을 띠고 있다는 사실이다. 듀이는 헤겔과 같이 가능한 인식론은 사회구조 내에서 그 자체를 만들어 내는 사상을 다루는 인식론이며 사상은 문화의 한 국면이고 정신은 언제 어디서나 유기체가 물리적 사회적 환경과 더불어 상호 작용하는 과정이라고 보았다.

듀이 철학의 두 번째 발전 단계에 나타난 특징을 살펴보면, 우선 그의 두 번째 철학 발전의 단계가 성립하도록 절대적인 영향을 끼친 것은 다윈의 종의 기원(origins of species, 1859)에 나타난 진화론이다. 듀이는 19세기 후반기에 생물과학의 발달에 깊은 관심을 가졌고, 그의 원숙기 철학을 살펴보면 아리스토텔레스(Aristoteles) 이후 어느 철학보다도 생물학적이라는 평을 받았다. 생물학적 착상 밑에 관념론과 절대주의의 흔적은 완전히 그의 사상으로부터 제거되고 그 대신 철저하게 자연주의적 사상체계가 출현하게 되었다. 듀이는 역사적 과정을 어떤 포괄적 우주 계획의 전개로 보지 않고 부단히 변화하는 조건을 가진 다수요인들의 상호 작용으로 보았다. 상호 작용하는 요인중의 하나는 유기체가 그에게 작용하는 세력들을 그 자신의 보존, 갱신, 및 전진을 위한 수단으로 전환시킨다는 종류의 것이다(Dewey, 1916, pp. 1-2). 둘째, 듀이는 다윈의 생물학에 동조하면서 헤겔의 인식론과 그 밖의 근대인식론에 반대하면서 경험이 본래 인식의 성질을 띤 것이 아님을 강조하

고 있다. 사고란 유기체가 환경에다 그 자신을 적응 또는 환경 속에 변화를 일으킬 때 쓰는 기술의 일부분이며 경험과 외연을 같이 하는 것이 아니라고 주장한다. 사고가 경험과 외연을 같이하는 것이 아닌 것과 같이 경험은 자연과 외연을 같이하는 것이 못된다고 하였다. 그러므로 경험은 “언제나 그리고 어디서나 일어나는 것이 아니다(Dewey, 1929, p. 48)”라고 하였으며 생활이나 경험은 자연 속에서 발생한다고 하였다. 자연의 체계는 생활이나 경험이 발생하기 훨씬 이전에 이미 오랫동안 존재해 온 것이고 대체로 생활이나 경험에 조금도 존재하지 않고 계속 존재해 나가는 것이다. 경험은 자연 속에서 일어나는 환경으로서의 자연을 전제로 한다고 하였다.

마지막 단계로, 그의 예술 경험을 그의 철학의 정점으로 정립하는 단계이다. 우선 『경험과 자연』에서 자연과의 상호교섭이라는 설명으로 ‘자연’에 대한 이해를 돕고 있다. 우선 자연이란 ‘사건들의 사건(affair of affairs)’ 이라고 일련의 겹쳐지고 상호 침투적인 상호교섭으로 이루어져 있다고 하였다. 그러나 이런 단계들 하나하나는 다른 자연의 특징과 성질을 드러내 보인다. 그래서 듀이는 자연의 상호교섭의 세 가지 주요 수준을 물리적이고도 화학적인 수준, 정신적이지자 물리적인 수준, 그리고 마음 또는 인간 경험 수준의 세 가지로 구분하고 있다(Bernstein, 1966, pp. 84-86). 그리고 예술을 논하면서 듀이는 예술이란 일종의 경험함이며 경험하는 것 속에서 상상적으로 매체를 사용함으로써, 즉 색, 빛, 선 음 등 예술의 모든 자원들을 구성함으로써 살아있는 생명체는 활기를 얻게 되고, 그 활기는 형식을 통해 생동감 있는 질서를 부여받는다. 그런 만큼 예술이란 의사 소통의 방식으로 기능하는 에너지의 유형이라는 관점으로 예술을 논하면서 그의 미학적 관점을 완성하고 있다(Bernstein, 1966, pp. 84-86).

2) 경험주의 철학의 기저

듀이 철학의 핵심이 되는 경험의 본질과 원리를 살펴보기 전에 듀이의 경험주의 기저가 되는, 즉 인간을 특별한 존재로 여기기보다는 하나의 생명체로 보는 자연주의적 인간관과 경험의 발달 과정, 그리고 지식을 절대적 실재

라고 보지 않고 하나의 도구에 지나지 않는다는 도구주의(instrumentalism) 지식론에 비추어 좀 더 구체적으로 살펴보자.

(1) 자연주의적 인간관

듀이는 인간의 본성을 헤겔의 관념론과는 달리 자연주의에 입각하여 인간을 자연의 일부, 즉 생명체(living being)로서 파악하였다. 이러한 생명체는 “살아있는 한 생명체는 주의 에너지를 자기 자신을 위해서 이용하려고 노력한다(Dewey, 1916, p. 1).” 즉, 생명체는 살아있다는 데서 의미를 갖는다는 것이다. 이러한 자연주의적 인간론은 다윈의 생물학적 진화론에 크게 영향을 받음으로써 자연주의 철학으로 전환하였기 때문에 가능하였다.

듀이의 생명체로서의 인간의 특징을 다음과 같이 설명하였다.

첫째, ‘주위의 에너지’ 즉 환경에 의존한다는 것이다. 생명체는 환경에 적응함으로써 비로소 존재가 가능하다는 것이다. 여기서 듀이의 주장은 다윈의 적자생존이 의미하는 것처럼 생명체가 환경에 일방적으로 의존하는 것이 아니라, 생명체는 생명을 유지하기 위하여 환경을 이용하는 활동을 한다는 것이다. 즉 생명체는 자신을 환경에 적응시킬 뿐만 아니라, 환경을 자신을 위해서 적응시키기도 한다는 것이다. 따라서 생명체는 자연 속의 다른 것들과 대등한 위치에서 서로 작용을 주고받으면서 자연을 구성하고 변화시켜 간다는 것이다. 결국 생명체는 환경과 서로 영향을 주고받음으로써 존재가 가능하다는 것이다.

둘째, 생명체로서 인간은 활동(activity)을 한다는 것이다. 그는 생명체와 그를 둘러싸고 있는 에너지 즉 환경은 계속해서 변화하고 있는 것으로 보고, 행동이 일어나는 환경은 결코 두 번 다시 같을 수 없다고 주장하였다. 이 말은 생명체도 변화하고 있고 주위의 에너지도 변화하고 있으므로 생명체가 주위의 환경과 끊임없이 계속해서 상호작용을 하여야 한다는 뜻이다. 이러한 생명체와 환경의 상호작용의 양식을 ‘활동’이라고 규정하였다(Dewey, 1922, p. 142). 이처럼 듀이는 자연주의에 입각하여 인간을 자연 속에 있는 생명체의 일부로서 파악하고 그 속에서 인간의 수동적인 경험과 능동적인 경험 활동 속에서 인간은 성장하고 있다고 보고 있다. 또한 인간의 내적 본질, 즉

인간성을 파악하는 데 있어 어떤 선형적인 것에 의존하지 않고 생물학적 또는 생리학적 특성에 의존하여 인간성의 근거를 인체의 구조적 특성에서 찾고 있다.

따라서 듀이는 인간의 본성을 이해하는 데 있어서 합리주의자들이 주장하는 선형적 이성을 근거 없는 것이라고 비판하며, 마음은 외부의 표상을 수동적으로 각인함으로써 형성된다는 경험주의자들의 주장도 부정한다. 그는 자연주의적 입장에서 인간을 생명체로 파악하였다. 그러므로 그는 인간을 신경조직에 근거를 둔 충동을 생득적으로 가진 존재로 보았고, 그러한 능동적이고 맹목적인 충동을 가진 인간이 그의 환경과 상호 작용한 결과 효율적인 행동방식인 습관과 효율적 사고방식인 지력을 획득하는 것으로 보았다.

(2) 경험 발달 과정

듀이는 인간의 자연주의적 본성을 바탕으로 하여 인간의 성장 발달에 따른 단계를 충동(impulse)적 경험 단계, 습관(habit)적 경험 단계, 그리고 지력(intelligence)²⁾(노진호, 2002, p. 25)을 바탕으로 한 반성적 사고의 단계로 구분하고 있다.

듀이는 경험의 원리에 의거하여 인간의 성장 발달에 따른 경험의 획득과정을 다음과 같이 3단계로 구분하여 설명을 하고 있다.

① 충동적 경험 단계(the stage of impulse experience)

충동은 생득적인 것으로 다양하게 표현될 수 있는 융통성을 가지고 있다. 즉 충동에는 무수히 많은 본래적이거나 본능적인 활동들이 있는데 그것들은

2) 듀이의 intelligence에 대한 번역어로는 지성, 지능, 지력 등이 사용되고 있다. 이 중에서 지성은 도덕적 인간과 주로 관련된 특성의 느낌을 주며, 이성, 감성, 오성 등과 비교됨으로써 인간의 선천적인 능력을 의미하는 것으로 오해될 가능성이 있다. 또한 심리학에서 많이 사용되고 있는 지능이라는 용어는 수리력, 논리력, 어휘력 등 몇 가지 정신적 기능들의 종합을 의미하는 것으로 생각되기 쉬우며, 또한 정서적, 도덕적 성향과는 분리된 인지적 성향만을 의미하는 것으로 생각되기 쉽다. 이 두 용어가 내포하고 있는 선입견에 의한 오해의 가능성을 줄이고, 인간의 삶에서 일어날 수 있는 모든 문제를 해결하는데 적용될 수 있는 사고능력을 지칭하는 듀이의 의미를 표현하는 데는 지력이라는 용어가 교육계에서 보편적으로 사용되고 있다.

반응하는 상황에 따라 여러 가지 관심과 성향으로 조직된다. 그리고 충동은 자극하는 다른 동인이 없어도 스스로 적극적, 능동적으로 작용하여 활동으로 표현된다는 능동적인 경향성을 갖는다. 그래서 충동은 융통성이 있고 능동적이지만 방향감이 없어 맹목적이며 산만한 특성을 지니지만 지력의 발생이나 생활의 성장에 있어서 중요한 의의를 가진다고 하였다.

② 습관적 경험 단계(the stage of habit experience)

습관은 충동에서 출발하지만 생득적인 충동과는 달리 후천적으로 습득되는 효율적인 행동방식이다. 즉 습관은 유기체가 가지고 있는 요소와 외부세계인 환경에서 제공된 요소와의 상호작용의 결과 가지게 되는 기능이다. 이 말은 습관은 환경을 통제함으로써 자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수단적 행동방식이므로 하나의 기능이라는 것이다. 따라서 후천적인 하나의 습관이 형성되면 그 습관은 유사한 사태를 효율적으로 처리할 수 있다. 이러한 습관을 형성함으로써 인간은 생활 속에서 부딪치는 무수한 사태들을 일일이 심사숙고하거나 주저함이 없이 효율적으로 처리할 수 있는 능력을 갖게 된다는 것이다. 또한 듀이는 이러한 습관들이 각각 독립적으로 떨어져 있는 것으로 보지 않았다. 그리고 환경이 서로 겹치고, 상황들이 연속되며, 비록 상황들이 멀리 떨어져 있을지라도 유사한 요소들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습관들 서로간의 끊임없는 변화는 항상 계속된다. 이렇게 습관들은 서로 영향을 주고받으면서 하나의 조직을 이루게 되며, 이처럼 습관들의 조직은 그것을 소유한 사람의 행동 방식 총체를 의미한다. 그래서 듀이는 모든 습관들은 특정한 종류의 활동을 요구하고 자아를 형성한다고 하였다. 또한 이것을 의지의 의미와 관련시켜 보면, 그것들은 우리의 효율적인 욕망을 형성하며 우리에게 작업능력을 부여하고, 우리의 사고를 지배한다고 주장하였다.

그러나 습관에는 충동과 마찬가지로 적극적으로 스스로 표현하려는 경향이 있다. 따라서 습관은 그것이 형성된 상황과 유사한 상황이 있으면 우선적으로 적용되려 한다는 것이다. 습관의 이러한 적극적, 능동적 성격은 우리의 행동을 지나치게 고정화시킴으로써 오히려 행동의 효율성을 해칠 우려가 있다. 그래서 듀이는 습관(habit)과 타성(habitation), 지적(intellectual) 습관과 고정된(fixed) 습관, 좋은(good) 습관과 나쁜(bad) 습관으로 구분하였다. 이갈

이 지나치게 고정된 습관을 타성(habitation³⁾)이라 하여 지적인 사고가 결여되어 있는 습관이라 하였고, 지적인 사고가 결여됨으로써 행동의 결과가 잘못되는 경우에 그것을 '나쁜 습관'(bad habit)이라고 하였다. 반대로 지적인 사고가 개입된 습관을 '좋은 습관(good habit)'이라고 하였다.

③ 반성적 경험단계(the stage of reflective experience)

이 단계는 아동이 성장함에 따라 지력도 성장하고 충동적 습관적 경험의 단계를 넘어서는 시기이다. 자기의 행동에 대하여 생각하고 행동의 결과에 대하여 생각하고 행동의 결과에 대하여 일정하고 명확한 투시를 하면서 행동을 하는 즉, 지력을 통한 반성적 사고(reflective thinking)를 포함한 단계이다.

지력의 특성은 첫째, 경험을 초월해서 존재하는 선형적인 것이거나 생득적인 것이 아니라 과거의 경험으로부터 나온다. 즉 지력은 인간과 환경의 상호작용인 경험의 결과 획득된다는 것이다. 그러므로 듀이에 있어서 지력은 후천적으로 형성되며 인간의 삶과 더불어 경험의 과정을 통해 계속해서 성장, 발달하게 된다. 둘째, 경험의 과정 자체 내에 들어 있는 '적극적이고 계획하는 사고(active and planning thought)'를 지칭한다. 즉 지력이란 경험의 결과 획득된 제안들이 새로운 구체적인 경험 속에서 작용하는 것을 가리키며, 그것은 상상 속에서 습관들과 충동들을 다양하게 조합하는 실험, 곧 일종의 사고(Dewey, 1916, p. 179)를 가리킨다.

다시 말하면 반성적 사고 경험은 현실적 가능성으로서의 동물의 상태를 벗어나 미래 가능성을 추정 상태로서의 사고와 경험이 가능하다는 뜻이다. 우리가 환경적 상황에 당면하여 어떠한 사건을 처리할 때 관찰을 하고 방법을 생각하며 활동을 개시하여 일정한 결과를 기대하면서 행동을 한다는 것이다. 이러한 과정에 따라 활동과 경과가 지력의 흐름 속에 결부되어 어떠한 다른 상황이나 사태에 직면하여 그것을 처리할 지식을 획득하게 된다는 것이다. 물론 습관적 경험도 어느 정도 목적 의식을 자각하지만 반성적 경험은 더욱 경험과 사고 과정을 확대하여 추리도 가능하게 해 준다.

3) habituation; 영어의 habituation은 habit와 형태적 유사성을 가지고 있지만, Dewey는 양자를 현격하게 다른 것으로 구분하고 있다.

(3) 도구주의적 지식론

듀이의 지식론은 단적으로 도구주의 지식론(The Instrumental Theory)이라고 할 수 있다. 곧 지식은 독자적이고 자족적인 것이 아니라 삶을 지속시키고 진화시키는 과정에 포함되어 있는 것이다. 이처럼 듀이는 지식이 인간의 삶과 분리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지식을 오직 인간이 생명을 유지하고 성장해 나가는 데 필요한 요소일 뿐인 것으로 보았다. 왜냐하면 지식은 삶을 위한 수단으로서의 가치를 가지게 되기 때문이다.

이러한 듀이의 지식론은 절대주의적 형이상학의 진리 대응론에 입각한 인식론을 부정한 퍼스의 오류가능주의(fallibilism)를 수용한 것으로써 상대주의적 상황론(relativistic situation)에 근거하여 지식을 “정당화된 주장(warranted assert)” (Dewey, 1948, p. 42)으로 보았다. 여기서 오류가능주의이란 인간은 사실의 문제에 관하여 절대적인 확실성을 획득할 수 없다는 것이다. 따라서 과거의 상황에서 정당화되어 성립된 지식일지라도 현재의 상황에서 갖는 의미가 확실성을 가지지 못하는 가설에 불과한 것이 될 수 있다는 것이다. 이러한 주장은 ‘지식은 실재(reality)의 반영’이라는 진리 대응론에 근거한 인식론 즉, 실재가 그대로 인간의 마음에 반영된 것이 진리라는 것과 그 개념이 근본적으로 대립된다.

전통적인 인식론에서는 참된 지식 또는 진리는 영원히 변하지 않는 절대적인 것이라고 규정한다. 그러므로 실재의 반영인 진리는 절대적이고 완전한 것이며, 오류의 가능성이 없는 것이다. 또한 형이상학적인 실재와 그것을 파악하는 인간의 마음을 대응시킨다는 것이다. 한쪽에 인간의 마음, 다른 쪽에 실재를 세워놓음으로써 인식의 문제는 결국 인간의 마음이 어떻게 실재를 파악하는가의 문제로 귀결된다. 여기에서 인식의 주체와 객체의 이원론이 생기게 된다. 따라서 실재로서의 객체를 주체인 인간의 마음이 직관이나 이성, 또는 감각기관에 의해 파악한다는 주장이 나오게 되는 것이다. 듀이는 이러한 진리대응론에 입각한 인식론을 시각 작용 또는 행위에 비유하여 관람자적 지식론(Dewey. 1984, p. 19) (a spectator theory of knowledge), 즉, 대상은 빛을 눈에 반사함으로써 보여진다고 하였다. 빛은 눈에, 즉 시각기관을 가진 사람에게 달라 보이게 하지만 보여지는 것을 달라지게 하는 것이 아니

라 대상은 경이로운 세계에 고정되어 있는 대상이므로 그것을 바라보는 모든 마음에 왕이 되는 것은 관람자적 지식론의 그 필연적 결과라고 하였다. 즉, 실재를 올바르게 보느냐 못 보느냐에 따라 진리의 파악여부가 결정되는데, 올바르게 보면 참된 지식이 얻어지고, 실재를 올바르게 보지 못하면 오류에 빠지게 된다는 것이다.

그러나 듀이 지식론에서는 형이상학의 대상이 실재의 세계가 아니라 자연의 세계라는 것이다. 그는 형이상학의 대상을 선험적 세계가 아니라 경험적 세계에서 찾았다. 그리고 형이상학의 목표는 자연에 존재하는 것들의 일반적 특성들의 상호관계를 드러내어 기술하는 것이며, 지식은 인간이나 사물들간의 관련성의 파악으로 규정하는 데서 발견된다고 하였다. 따라서 지식은 '모든 것' 즉 인간과 사물을 포함하는 모든 것들 사이의 관련성 또는 관계를 알려 주는 것이다. 그러므로 사물의 본질은 그것을 알려는 사람에게 저절로 드러나는 것이 아니라 다른 것과의 관련성 속에서만 드러나므로 어떤 하나의 사건은 관련된 모든 요소들의 총체적인 맥락(a contextual whole)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고 보았다. 그리고 이런 총체적 맥락을 '상황(situation)'이라고 하였다(Dewey, 1938, p. 66). 그래서 듀이는 지식을 하나의 대상이 어떤 주어진 상황에 적용될 수 있는지를 결정하는 그 대상의 관련성들을 파악하는 것이라고 규정하였다.

또한 듀이는 개인이 하나의 상황 속에서 환경과 상호 작용한 결과 지식이 획득된다고 하여 반성적 사고를 강조하고, 듀이는 반성적 사고를 문제 상황의 해결에 적용하였다. 사고 방법의 과정은 첫째, 문제 상황의 인식이며, 둘째, 가설의 설정이다. 이는 문제해결을 위한 시사와 조건의 반성적 분석을 통한 것이다. 셋째, 검토와 정의이다. 설정된 가설은 추리를 통하여 실제적 적용에서 검증할 수 있도록 검토하고 정의하는 것이다. 넷째, 결과의 검증이다. 설정된 가설을 실제적 적용에서 나타난 결과의 검토를 통한 검증 등이다. 이러한 반성적 사고는 자연 과학에서는 크게 적용되었으나, 도덕, 정치, 예술, 교육 분야에서는 적용되지 못하여 문화적 지체를 가져왔다는 것이 듀이의 주장이다(Dewey, 1938, preface).

이와 함께 듀이는 지식을 '지식의 내용(the contents of knowledge)'과 '지

식의 참고(the reference of knowledge)'로 구분하였다. 지식의 내용은 일어난 것, 완성된 것, 해결된 것, 확실한 것 등의 과거적인 것이고, 지식의 참고는 미래적인 것이다. 그러므로 이러한 지식의 내용과 지식의 참고는 이미 일어난 것과 계속되는 것을 이해하는 수단을 제공해 주게 된다(Dewey, 1938, p. 18). 그래서 지식은 인간이 의식하고 있는 것은 지식이 아니라 인간의 곤란을 해결하는 데 사용되는 경향성, 즉 인간 행위에 지성을 부여하는 습관, 현실적 사건을 이해하는 데 적용되는 인간의 경향성, 환경을 인간의 요구나 목적에 적응시켜 줄 수 있는 지적 자원 등이 지식을 성립시키는 것이 된다.

2. 경험의 본질과 원리

1) 경험의 본질

듀이 철학에서 경험을 제외한다면 인간적 삶이나 환경을 이해할 수가 없기 때문에 경험의 본질을 살펴본다.

경험은 하나는 “객관적 요소로서 어느 때나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것들의 총계(總計)이며, 다른 하나는 주관적 요소로서 사고가 일어나고 있는 내적 상태이다”(오병문, 1983, p. 35). 우리의 내적 상태란 우리의 경험 그 자체이다. 그러기 때문에 내적 상태의 실재와 경험의 실재와는 하나이다. 그것은 우리가 의식하고 있는 세계, 느끼고 생각되는 대상, 대상에 대한 태도 및 그 태도를 가진 자의 자기관념을 모두 합친 것이다. 따라서 경험은 객관적 요소와 주관적 요소를 합한 광범위하고도 포괄적인 것이 된다.

또한 듀이는 경험의 본질(nature of experience)을 이해하려 하는 2가지 요소를 인간에게 찾아 볼 수 있다고 하였다. 하나는 능동적 요소로서 ‘무엇을 해보는 일(trying)’이며, 다른 하나는 수동적 요소로서 ‘무엇을 당하는 일(undergoing)’이다. 전자는 인간이 무슨 일을 할 때 우선 시험을 해 보고 실험을 해보면서 사건과 사건 사이의 관계를 맺어 보는 일이다. 후자는 인간이 무엇을 받아들이는 일이며, 어떤 사건이 발생하였을 때 당하는 일이며, 무엇인가를 관계를 맺는 것의 결과를 받는 일이다. 따라서 인간이 무슨 일을 하

면 그 결과가 무슨 일을 해 온다는 것이다. 위와 같은 2가지 요소의 결합하는 정도나 결과가 경험의 성과 또는 가치를 측정하게 된다.

듀이는 모든 인간적 삶의 영위를 경험이라는 기저에서 이해하려고 노력하였고, 그러한 노력의 결과로 경험의 본질을 밝히고 그 개념을 정립하였다. 듀이는 경험 이외의, 경험 이전의, 경험 이상의 세계에서 인간적 삶의 기저를 모색하려고 하는 모든 철학사상을 부정하였다. 그는 인간적 삶의 기저를 바로 경험에서 찾아야 한다고 강조하였다. 듀이는 경험을 유기체와 환경 사이에서 이루어지는 협동적 상호작용(cooperative interaction)이며 그것은 인식하는 입장에서는 자아이고 인식되는 입장에서는 객관이다 인식하는 주체나 인식되는 객체는 연속적 전체이다. 주관주의와 객관주의 대립에서 벗어나, 자연과 경험은 근본적으로 분리될 수 없다고 듀이는 주장한다. 따라서 듀이에 의하면 경험은 자연적인 동시에 자연의 표현이라고 하였다. 경험은 자연과 연속되어 있는 동시에 그 자연은 시간과 연장, 질량과 중량을 소유하고 미의 근본과 환희의 근본이 되고 인간적인 것으로 진전할 계기가 된다고 하였다.

듀이의 경험이 내포하고 있는 의미를 그의 저서에서 좀더 살펴보자.

『경험과 자연』에서 경험이란 자연 속에서 일어나는 경험이라고 하였다. 여기에서 자연의 경험이란 자연을 경험한다는 뜻이 아니라 경험 그 자체가 자연의 과정이라는 것이다. 자연과 상호 작용하는 그 자체가 경험이므로 그의 경험을 ‘자연주의적 형이상학’이라 일컫는다. 그래서 듀이는 인간을 자연의 일부로 보고, 유기체와 환경간의 부단한 상호작용 속에서 인간이 생성(becoming)되고 존재한다고 봄으로써 전통적 이원론에 반대하였다. 인간은 이러한 상호작용 속에서 부단한 적응을 통하여 변화되고, 또 환경도 인간 행동에 의하여 부단히 변화해 간다. 왜냐하면 환경이 일방적으로 인간을 지배하는 것이 아니고, 환경의 지배를 극복한 인간이 환경을 다시 지배하는 환경과 인간과의 계속적 상호작용을 의미하기 때문이다.

『경험과 교육』에서는 당시(1930년대) 미국에서 전개된 ‘아동중심교육’의 운동을 의미하고 있는 ‘진보주의 교육(progressive education)’의 극단적인 경향에 대하여 자신의 입장을 밝히면서 교육을 ‘성장’으로 설명하였고, 그의 저서

『예술론』에서는 하나의 경험 단위가 어떻게 성립하며 그 경험들이 어떻게 통합되는가를 예술 경험으로서 밝히고 있다.

이와 같이 경험은 인간과 환경과의 계속적 상호작용이므로 경험의 계속적인 재구성 작용이 인간의 발달 성장이라고 하였다. 이 발달이 곧 생활이며, 성장이다. 이러한 발달이나 성장 이외의 어떤 목적도 갖지 않는다고 주장하였고, 성장이나 발달을 ‘보편적 성장(universal growth)’, ‘계속적 성장(continued growth)’, 또는 ‘경험의 질적인 발달(improvement of the quality of experience)’이라는 말로 표현하였으며, 인간의 상호작용에 있어서 궁극적인 의의는 경험의 질을 발달시키는 것으로 보았다(Wynne, 1963, p. 188).

이처럼 듀이 경험의 본질은 근본적으로 인간과 환경과의 상호작용을 의미하며, 이러한 상호작용으로서의 활동을 그는 상호교섭(transaction), 또는 조작(operation)이라고 부르고 있다. 다시 말하면 인간의 활동은 인간과 그의 환경이 서로 얽힌 직접적 교보이다. 좀더 엄밀히 말한다면 ‘직접적 경험’이라고 하였다.

듀이는 이러한 경험의 본질에 준거를 두고, ‘경험의 계속성의 원리(the principle of continuity)’와 ‘상호작용의 원리(the principle of interaction)’로 경험의 속성을 설명한다(Dewey, 1938, p. 188).

(1) 계속성의 원리

계속성의 원리는 듀이의 논리학에 있어서 자연주의적 이론의 기본 개념이다. 자연주의적 계속성이라는 용어는 다양한 의미를 갖는다. 즉 탐구의 작용, 생물학적 작용, 물리적 작용간에는 계속성을 가지며 충돌이 없으며, 또 다른 한편으로는 유기체적 활동에서 발전하는 작용은 그것이 발전되어 나온 이전의 작용과는 동일하지 않다는 것이다. 또한 계속성의 사상은 자연의 생물학적 수준이 덜 정련된 유기체적 차원으로부터 발전된 더 복잡하게 확대된 것으로 본다는 것이다. 이같이 계속성은 사물의 본질 속에 단절이나 분열은 없음을 의미하며, 그것은 듀이의 상황(situation)이론에 잘 나타나 있다. 곧 모든 상황은 독특하게 주어진 충돌과 긴장 또는 통일과 평정으로 특징 지워진다. 독특한 조건을 갖는 각 상황은 내면적인 면은 물론 전체적인 면으로도

연결된다. 과거의 것으로부터 미래의 것으로 완전히 단절 없이 전개한다는 원리이다.

따라서 계속성의 원리는 경험에 있어서 시간적 측면을 말하며, 그것은 경험의 수동적인 면과 능동적인 면의 통일과정을 뜻한다. 따라서 계속성의 원리는 이전의 경험을 받아들임으로써 이후의 경험이 개조(改造)되며, 이것을 시간적으로 보면 과거의 경험을 받아들임으로써 현재의 활동이 보다 나은 미래를 개척해 나가는 것을 뜻한다. 그러므로 모든 경험은 무엇인가를 행하고 또 받아들이는 과정에서 인간을 변화시키며, 동시에 어떠한 방식으로든지 후속하는 경험에 영향을 끼친다. 그리고 모든 경험은 이전의 경험으로부터 무엇인가를 받아들이는 동시에, 이후에 오는 경험의 성질을 어떤 방식으로든지 개입하여 변화시킨다. 이런 뜻에서 경험은 언제나 성장하고 움직이고 있는 힘이라고 하였다(오병문, 1983, pp. 49-50).

(2) 상호작용의 원리

상호작용의 원리는 경험에 있어서 공간적 측면을 뜻하며, 그것은 사물과 인간의 세계에 살고 있다는 것, 즉 개인과 환경과의 상호관계에서 오는 여러 가지 상황을 말한다. 인간은 그의 생애를 통하여 사물과 인간의 세계 속에 살고 있다. 다시 말하면 인간은 생물적 사회적 환경과의 상호교섭 속에서 살고 있는 것이다. 이처럼 경험의 형성은 개인에게 달려 있고 그 다음에는 환경에 따라 좌우된다. 그러나 우리가 얻는 경험이 어떤 개인을 외부로부터의 지배 속에 종속시킨다든가 또는 개인의 내부를 제한할 수는 없다. 도리어 환경면에서 보면 이와 같은 외부적 또는 객관적 상황이나 사정 등이 직접경험을 하고 있는 개인의 외부에서 자연적으로 발생하는 사정(개인의 욕구, 욕망, 능력)에 종속시킬 수는 있을 때만이 경험은 참다운 경험이 된다. 따라서 경험은 객관적 조건이 적절히 조정되어 개인의 즉흥적인 내적 상태 사이에 특유한 종류의 상호작용으로 일어나고 있는 것으로 설명된다. 모든 정상적인 경험에 있어서 2요소는 객관적 조건과 내부적 조건 사이의 상호작용으로 말미암아 드러나며, 또한 경험은 언제나 개인과 그 당시에 그의 환경을 구성하는 것과의 사이에서 일어나는 거래로 말미암아 성립된 것이다. 그러므로 개인

과 환경 및 다른 사람과의 사이에는 늘 상호작용이 일어나고 있는 것이다. 그 환경이란 어떠한 조건임을 막론하고 경험을 만들기 위하여 개인의 욕구, 욕망, 목적 및 능력과 더불어 상호 작용함으로써 생기는 결과에 불과한 것이다.

이처럼 상호작용의 원리는 객관적 상황과 내부적 상황이라는 두 관계의 상황적 상호작용이며, 이 두 관계의 상황적 상호작용은 평등적 관계이다. 이 경우에 상호 평등한 관계와 권리를 가지고 있지만, 객관적 상황(환경)은 경험의 창조에 도움이 될 수 있는 개인의 내부에 발생하고 있는 주관적 요구, 욕망, 목적 및 능력과 상호 작용하는 상황에 지나지 않는다는 것이다. 말하자면 개인과 환경과의 상호작용을 듀이는 상황의 형성이라고 칭하고 있다. 우리들이 세계 속에 산다는 것은 이와 같은 상황의 계열 속에 살고 있다는 것을 뜻하고 있다.

또한 상호작용의 원리는 개인이 하나의 상황 속에서 상호 작용한 결과로 지식이 획득된다는 것이다. 그러므로 상호작용의 원리는 경험이 이루어지는 과정에 관한 원리이며, 지식획득 과정의 원리로 간주된다. 이 원리에 의하면 지식은 행동과 사고에 의해 획득된다고 볼 수 있는데, 그것은 지식의 획득과정(knowing)은 행동의 과정(doing)에서 일어난 문제를 해결하려는 사고작용(thinking)에 의해 이루어진다.

결국 경험의 상호작용의 원리는 두 가지 요소를 포함하고 있는데, 하나는 인간과 환경간의 상호작용 과정이요, 또 하나는 그 상호작용의 결과 드러나는 관련성에 대한 파악이다. 앞의 것은 행동을, 뒤에 따르는 것은 사고를 의미한다. 따라서 경험은 행동과 사고를 모두 포함하고 있는 것이 된다.

(1), (2)에서 보는 바와 같이 경험의 두 원리인 계속성의 원리와 상호작용의 원리는 서로 분리될 수 없는 관계에 있다. 이 두 원리는 상호 견제하면서 동시에 하나로 묶여 있다(오병문, 1983, p. 44). 말하자면 이들은 경험의 종적인 측면과 횡적인 측면에 해당한다. 즉 이전의 경험이 이후의 경험으로 이어지는 경험의 계속성은 경험의 종적인 차원을 형성한다. 반면에 어떠한 경험을 한 결과로 주위의 환경이 재구성되고, 그렇게 재구성된 환경과 교섭을 하게 되는 경험의 상호작용은 경험의 횡적인 차원을 형성한다. 이러한 경험의 수직적이며 수평적인 지평의 확대에 의하여 경험은 부단히 새롭게

재구성되는 가운데 성장하는 것이다. 다양한 상황들이 서로 꼬리를 물고 일어난다. 그러나 계속성의 원리로 인하여 이전의 상황으로부터 이후의 상황으로 무엇인가가 전해진다. 그가 하나의 상황 속에서 학습한 지식이나 기술은 그 상황에 뒤따르는 다른 상황을 효과적으로 이해하고, 다루는 데에 활용되는 도구가 되는데, 이러한 과정은 한 개인의 삶이 지속되고 그의 학습이 계속되는 한 끊임없이 이루어진다.

Ⅲ. 경험과 자연

1. 경험과 자연의 연속성

듀이는 인간이 경험을 통해 자연에 침투하는 과정은 단절됨이 없이 자연 전체를 드러내기까지 계속된다고 보았다. 경험의 제원리에서 연속성과 상호작용은 바로 자연의 전체를 드러내기까지의 연속과 상호작용이라는 뜻이기도 하다. 그는 상황이론(situation theory)에 의해 이러한 방법론적 접근의 가능성과 한계를 밝히고 있는바, 이 상황이론에 의해 자연의 범위가 시간적으로나 공간적으로 전우주를 포함하는 하나의 전체임을 주장한다. 듀이가 경험적 방법에 의한 자연탐구라는 입장에 서있으면서 동시에 하나의 전체로서 자연을 상정할 수 있었던 것은 그가 생각한 탐구의 의미가 경험적 확인절차를 넘어서는 일종의 '사고를 동반한 자연'을 함축하기 때문이다. 듀이의 경험이론은 사고, 즉 반성적 사고와 영역을 달리하고 있지 않다. 오히려 그의 경험 개념은 높은 단계에서 사고와 연결되어 있을 뿐 아니라 사고를 내포하고 있는 것이다. 이러한 견지에서 볼 때, 경험된 자연을 단절됨이 없이 사고된 자연으로 발전시키고 있는 것이 그의 철학의 특징이기도 하다.

그러므로 듀이는 자연은 모든 것을 포함할 수 있는 하나의 전체라는 용량을 말하고 있다. 이 자연 속에는 대립과 갈등, 안정과 불안정 등이 혼재하고 있다. 또한 모든 유기체와 그 유기체의 기능, 인간과 경험도 자연에 의해 존

재하고 있는 것이다. 이와 같은 존재방식을 듀이는 계속성과 상호작용이라는 경험의 원리에 의해 파악하였다(Dewey, 1916, p. 44). 그런데 이는 곧 자연의 계속성이나 상호작용을 전제한 것으로서, 우리는 자연 중에서 그 자연의 현상을 '질성(quality)'으로 인식한다는 것이다. 그리하여 그것을 확인하는 방법이 경험 이외에는 있을 수 없으며, 경험을 넘어서 어떠한 초월적 존재도 인정하지 않게 된다. 듀이는 인간이 자연 밖에서 주체로서 자연을 대상화하지 않고 자연 속에서 주체로서 자연과 대립한다고 보았다.

듀이의 자연주의에서 중심이론인 상황론과 질성에 관해 살펴보자,

상황론은 일종의 생활경험구조라고 할 수 있다. 철학이 갖는 전체성이나 궁극성의 중국적인 의미에 대하여, 듀이는 인간의 생물적인 감각과 생활 활동인 경험을 통해 중국적인 지점에 도달할 수 있다고 보았다. 개체들은 횡적으로 확장되어 가며 종적으로도 계속되어 가는 기능의 씨줄과 날줄로써 전체를 구성한다. 이 때 횡적 확장의 기능은 상호작용의 공간성으로 이해되며, 종적인 계속성은 시간성의 의미로 이해된다. 듀이의 이러한 시·공간 개념은 개인의 경험에 있어서 구체적 생활환경을 이루는 상황의 요소들이다. 기능의 시·공간적 결합을 통해 구성되는 전체는 인위적 구성물이라기보다는 자연이라는 단일의 존재로 파악된다. 이 전체를 인간 주체자가 경험을 통해 파악해 간다는 것이다. 인간 활동이 환경과 연관되는 경우, 그 기능적 측면에서 보는 것이 경험이요, 구조적 측면에서 보는 것은 상황이다.

듀이는 이 상황이 하나의 전체가 되는 데에는 그 안에 편재하는 질성으로 말미암은 것이며, 이 전체는 관찰의 대상이 되기보다는 오히려 느껴지고 소유되는 것이라고 파악하고 있다. 이 편재적인 질성(pervasive quality)이 동적인 성격을 갖는 구성성분들을 하나의 전체로 묶어준다고 하였다. 문제 상황이 발생했을 때, 질적으로 단일하며 전후관계상 하나였던 안정된 상황이 분열하면서 구성성분들이 서로 갈등하고 반목하게 된다. 이 불안상태를 회복하는 조정기능으로 반성적 사고가 발생하며, 이때 주체는 사고하는 자가 되고 이 상황은 사고하는 상황으로 전환한다. 유리된 부분이거나 상황 밖의 다른 영역에서 부과된 것이 아니다. 사고하는 상황은 안정과 평형으로 향한 자체내의 운동에서 변증법적으로 통일된 하나의 상황으로 자신을 확장한다. 이

러한 잠재적 가능성으로 인해 상황은 더욱 더 넓은 상황을 향해 입체적, 파상(波狀)적으로 발전해 갈 수 있다. 듀이가 볼 때 이 상황의 연속성은 공간적 연속성이나 공간적 전체가 인간 주체와 무관하게 있는 자연세계가 아니다. 상황은 인간이 생활기능으로써 직접, 간접으로 경험하는 것과 관계할 때에는 환경이며, 인간 경험은 유기체와 환경이 상호 작용하는 상황에서 확장된다. 이 상황의 순수한 추상개념이 바로 자연이다.

한편 듀이는 모든 경험이 자연 속에서 일어난다고 주장하였다. 따라서 경험과 자연의 연속성을 재정립시키는 것이 『경험과 자연』을 가로지르는 듀이의 가장 우선적인 관심사였다. 경험은 자연 내부에 존재할 뿐만 아니라 자연이 지니고 있는 것이다. 그런 만큼 경험되는 것은 경험이 아니라, 자연, 즉 돌, 식물, 동물, 질병, 건강, 기온, 전기 등과 같은 것이다. 혹은 어떤 방식으로 상호 작용하는 것이 경험이고 그것들은 경험된 것들이다. 말하자면, 사물들이 과연 어떻게 경험되는 것인가의 문제는 그것들이 다른 자연 대상, 즉 인간 유기체와 다른 어떤 방식으로 결합되는가와 맞물려 있다는 것을 뜻한다(Dewey, 1929, p. 4).

따라서 경험은 자연으로부터 소외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자연의 무수한 형식들 가운데 하나의 형식 안에서 자연으로 존재한다. 그러므로 경험은 유기체로서의 인간을 제외한 나머지 자연과의 상호 작용 안에 인간 유기체를 끌어들이는 자연의 국면이다. 물론 경험은 복합적이기는 하지만 바로 자연의 문제이고 경험의 출현은 수백만 년에 걸친 진화의 결과와 맞물려 있다. 또한 경험은 근면한 유기체가 역동적 환경과의 상호작용을 통해 규정되는 방식이 되고 있다 다시 말해서 경험은 자연에 부가된 것이 아니라 자연 내부에서, 그리고 자연을 통하여 발생하는 것이 되고 있다. 그러나 인간이 그들의 환경을 규정함에 있어서, 인간은 일차적으로 손대지 않은 자연의 요소들과 상호 작용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다. 왜냐하면 인간은 확실히 생물학적인 생명체이지만 본질적으로는 문화적 생명체이기 때문이다. 바꿔 말해 경험의 본래적 대상들은 유기체와 환경의 자연적인 상호작용들에 의해서 산출되고, 그리고 그 본질에 있어서 그 대상들은 감각적인 것도 개념적인 것도 아니며, 나아가 이러한 두 가지 것들의 혼합도 아니기 때문이다. 따라서 우

리가 경험의 대상이라 부르는 것들은 직접적인, 즉 일차적인 경험들의 질적 질료이다. 그리고 분석을 통하여 이 질적인 질료는 환경 속에서 조정되는 가운데 구분되고 선택된다.

그리고 듀이는 이러한 자연의 보편적 특성을 하나하나 드러내 보이고자 하였다. 이러한 특성들은 자연 속에 적절하게 자리잡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이런 특성들, 즉 불안정한 것, 안정된 것, 성질, 목적, 및 역사들은 듀이가 '상황들' 혹은 '맥락들'이라고 부르는 곳에서 발생하는 것들이다. 물론 이와 같은 상황들은 자연 내부에 존재하면서 자연에 속해 있는 환경들과 사태들이다. 그러므로 우리는 따로따로 분리된 대상과 사건에 대해 결코 경험할 수 없고 판단할 수도 없으며, 오직 하나의 연관주의적 전체와의 관련에 의해서만 경험할 수 있다. 또한 상황은 다양한 상이한 요소들을 소유하고 있으며 상호 작용하는 과정들의 하나의 복합체를 표상한다. 그리고 이러한 상황 혹은 맥락은 상황 안에 내재하는 지배적인 하나의 성질 혹은 성질들에 의해 드러난다. 그런 만큼 우리는 성질 자체, 우연성 자체, 가치 자체와 만나는 것은 아니지만, 성질, 우연성 등은 그들 특유의 상호 조합 속에서 상황의 특수한 요소들을 질화시킨다.

보편적 특성은 모두 상이하게 강조되면서 미적인 상황 안에서 출현한다고 말할 수 있다. 그런 만큼 듀이는 '의미'에 대한 관념과 미적 경험의 일차적 단계(하나의 경험)를 특징화시킬 수 있는 입장을 취하였다.

'안정된' 것은 상황 속에서 알려진 구조(인식적 자격)나 획일성(uniformity)을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을 나타낸다. 그런 만큼 중요한 문제는 자연이 관계들 및 인식 가능한 구조들을 가지고 있다는 것으로 이해되고 있다는 사실이다. 그러므로 안정된 것과 불안정한 것 사이의 균형은 인간과 같은 유기체를 자연에 참여시켜 어떤 기능을 하도록 허락하는 것이 되고 있다. 따라서 저항과 도전을 극복하려는 능력과 향후 밀어닥칠 저항들과 장애들을 극복하려는 노력 속에 도전의 양을 알맞게 통합시키려는 능력이 성장이고, 그렇게 함으로써 생존이 이루어진다는 것이다. 그런 만큼 그러한 것이 삶의 역사가 되고, 또한 안정되고 불안정한 특성들 없이는 그러한 것은 세계 속에서 일어날 수 없는 것이 되고 있다.

그리고 우연성이 자연의 한 부분이 된다는 사실인데, 즉 자연은 적합한 질서를 통하여 끊임없이 작동하는 위대한 기계나 정확한 시간 측정기가 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과정 속에서 존재하고 발전하고 변화하며, 새로운 사물들과 환경들을 존재케 하는 것이 되고 있다. 그런 만큼 자연은 기계적인 것이 아니라 변증법적인 것이 되고 있다. 이러한 견해는 19세기의 진화론적인 생물학적인 영향이라 할 수 있다. 이러한 이론들은 자연 내부에 존재하면서 자연이 소유하고 있는 불확정성(contingency)을 인정하고 체계화시켜왔다는 것을 나타낸다.

2. 직접적 질성

직접성(immediacy)을 위한 탐구는 19세기 서구 사상의 주요한 모티브들 가운데 하나였다. 말하자면 예술, 시, 철학 및 종교 사상을 통해 서구 사상에 있어서의 주지주의적인 강조에 대한 불만족이 점증되고 있었다는 점이다. 그런 만큼 서구 전통 속에 개념적인 지식과 추상에 대한 강조는 삶의 생동적이고 역동적이며 직접적인, 즉 삶의 느껴진 차원들을 무시해 버렸거나 심지어는 매우 자주 왜곡시켜 놓았다.

일차적인 성질들(primary qualities)이란 실체(substance)의 시공간적인 여러 연관성들이 자연을 이루고 있는, 이른바 실체들의 본질들이다. 그러므로 자연에서 발생하는 모든 일들이란 살아 있는 몸체에 어우러져 있는 마음에 의해 어떤 방식으로든 파악된다. 그러나 파악하는 마음은 감각들, 정확히 말하자면 오로지 마음의 성질인 감각들을 또한 경험한다. 왜냐하면 이러한 감각들은 외적인 자연에 몸을 제대로 맞추기 위해 마음에 의해 짜여진 것이기 때문이다. 그런 만큼 몸은 몸에 속하지 않는 성질들을 가진 것으로서, 실제로는 오로지 마음의 결과가 되는 성질들을 가진 것으로서 지각된다. 그런 만큼 자연은 실재에 있어 우리들 자신을 위하여 간직되어야만 신뢰를 획득할 수 있다.

경험의 모든 특수한 성질이란 유기체와 환경 사이의 상호교섭의 결과이거나 마지막 귀결점이기 때문에 만약 경험이 없다면 경험의 그 어떤 성질도

없을 것이지만, 그렇다고 해서 성질들이 경험하는 사람에게만 전적으로 속하고 있는 것도 아니다. 듀이는 『경험과 자연』 속에서 자연과의 상호교섭의 전체 영역에 질적인 직접성의 관념을 적용시키고 있다. 말하자면 그것들은 자연의 상호교섭들의 끝이라는 것이다. 이것은 상호 연관적인 하나의 전체 속에 있는 단순한 하나의 어떤 관계, 요소가 아니라 오히려 출발점이자 종착지가 되는 어떤 것이 되고 있다. 그러므로 하나의 사물이 존재하기 위하여 그리고 관계들의 주제와 담론의 테마가 되기 위하여, 소유하지 않으면 안 되는 환원 불가능하고 무한정으로 복잡하고 정의 할 수도 없는 성질들이 존재하고 있는 것이 된다. 따라서 존재의 직접성은 표현 불가능하지만 이러한 표현 불가능성을 신비로운 것으로 처리해 버릴 수는 더욱 없다. 왜냐하면 그러한 처리는 직접적인 존재에 관하여 누군가의 자아에 대한 어떤 것을 말하는 것이 쓸데없는 것이라는 사실을, 그리고 다른 어떤 것을 말하는 것이 불가능하다는 사실을 표현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처럼 자연이란 끊임없는 상호교섭으로 이루어져 있고, 그 상호교섭은 끊임없이 계속되지만, 드러나는 복잡성, 결과 및 행위 유형들에 따라 다르게 나타난다. 그런 만큼 자연의 규칙성, 항존성 및 연속성과 더불어 자연의 모든 상호교섭이란 질적인 직접성을 ‘소유하고’ 있고, 그 결과 각양 각색의 독특한 성질들이 있으며, 그 성질들은 자연의 상호교섭의 끝 또는 맺음이 되고 있다. 뿐만 아니라 자연의 상호교섭으로서의 경험은 자연의 그 나머지와 이어지고 있으며, 비록 그것이 다른 유형의 상호교섭과 분별될 수 있다고 하더라도 자연의 모든 상호교섭의 장르적인 특징을 드러내 보이는 것이 되고 있다. 따라서 “질적인 개별성과 항존적인 관계들, 우연성과 필요, 운동과 정지, 이 모든 것들은 존재의 공통적인 특징이다”(Dewey, 1929, p. 413). 그런 만큼 인간이 스스로 아는 이 세계는 한정성과 무한정성을 소유하고 있는 것이고, 자연 속에는 획일성들과 ‘기계 역학’이 존재하지만, 예상치 않은(미리 알 수 없었던) 성질들이 출현하고 있음과 동시에 새로운 것들 또한 존재하고 있다. 물론 상호교섭들의 질적인 맺음의 자리들이 존재하고 있다는 것 자체가 인간 가치의 궁극적인 원천이 되고, 직접적으로 발생하는 가치들은 곧바로 직접적인 성질들이 된다. 그러므로 가치를 소유하고 있는 것들조차 그런 상태

로는 직접적인 존재 속에서 반성될 수 없기 때문에, 가치란 존재하거나 존재하지 않는 것이 아니라 향유되거나 향유되지 않는 것이 문제가 된다. 왜냐하면 인간은 '좋은 것들'을 직접적으로 향유하는 생명체이고, 가치들을 소유하여 어떤 대상을 흔쾌히 받아들일 때마다 마음 깊이 간직할 때마다 가치들이 발생하기 때문이고, 또한 그 대상이 혐오스럽고 거부감을 줄 때마다 발생하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가치들은 불안정한 것이기 때문에, 상호 모순적인 가치들이 존재하고 있는 상황 속에서 우리가 스스로를 발견하게 된다는 사실은 모두가 터무니없는 발상이다. 왜냐하면 인간이란 자연의 단순한 예측물이 아님은 물론 인과적으로 선이 발생하고 악이 없어지기만을 단순히 기다리는 존재가 아니기 때문이다. 말하자면 모든 삶은 선택하고 고르고 결심하는 것들로 이루어져 있고, 이러한 일들이 의지와는 상관없이 이루어질 수도 있으나, 그러한 일들 대부분 속에는 어디까지나 지적인 선택이 존재할 수가 있기 때문이다(Dewey, 1929, p. 398).

이와 같이 듀이에 있어서 경험은 인간이 세계와 접촉하는 방식이자 그 안에 참여하는 방식으로서, 경험을 통해 사물과 인간 자신의 방식과 가능성이 분명해진다. 이처럼 경험은 자연의 심장부로 계속 침투하는 수단이 되며, 또한 인간 경험 속에서 자연은 발전하는 자신을 드러내기도 한다. 세계와 인간 상황의 가능성을 탐색하고 발견하며 결정하는 인간활동을 통해 자연의 새로운 면모가 드러나게 되는 것이다. 이것이 바로 '구조화된 과정'을 거치는 경험이다. 철학이 경험과 더불어 출발해야 한다는 명제는 인간의 반성적 사고가 인간 활동 및 세계에 대한 이해로부터 비롯되어야 하고, 또한 사물이나 사건의 직접적 질성의 경험을 통해 이루어져야 함과 동시에 사물이나 사건의 직접적 질성의 경험을 통해 이루어짐을 뜻한다.

IV. 예술 경험

1. 하나의 경험

듀이는 그의 예술론에서 미적 경험을 논하는 동시에 '하나의 경험(having an experience)'을 강조하고 있다. 그러므로 예술 경험 의미와 미적 경험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하나의 경험을 살펴보는 것이 필수적이다.

듀이는 생명체와 그 환경적 조건은 바로 삶의 과정에서 상호작용하고 있으므로 경험은 끊임없이 일어난다고 하였다, 이러한 상호작용에 관계된 자아와 세계의 모습, 그리고 그 구성요소는 저항과 갈등을 겪으면서 정서(emotions)와 관념(ideas)을 지닌 경험을 특징짓고, 그 결과로서 의식적인 행위가 나타난다. 그러나 우리가 소유한 경험은 때때로 불완전하며, 그 경험은 산만하고 분산되어 있다(Dewey, 1934, p. 35). 이러한 경험과는 반대로 경험된 내용이 제대로의 과정을 따라서 기능을 발휘하게 되는 '하나의' 완전한 경험을 소유하기도 한다. 이럴 때만 그 경험은 내적으로 통합되고 경험의 일반적인 흐름 속에서 다른 경험과 구별된다. 한 가지 일이 만족스럽게 끝나며, 문제는 해결에 이르고, 경기는 끝난다. 그리고 식사를 하든지 장기를 두든지 대화를 나누든지 책을 쓰든지 정치적 활동에 참여하든지, 그 어떤 사태든지 간에 잘 마무리되어 그것의 끝은 단순한 정지가 아니라 완결에 이른다. 이러한 경험은 하나의 전체이며 그 자체 내에 독특한 개성과 자족성을 지닌다. 이것이 바로 '하나의 경험'이다(Dewey, 1934, p. 35).

각각의 경험은 그 자체의 시작이 있고 끝이 있는 개별적인 것이다. 왜냐하면 삶은 아무런 방해를 받지 않는 행진이나 흐름과 같은 것이 아니기 때문이다. 삶은 역사를 지닌 삶이며 각각에는 그 자체의 구성이 있고, 발단이 있으며 종결을 향해 나아가는 움직임이 있다. 즉 자체의 독특한 리듬을 지니고 있는 것이다. 각각의 삶에는 그 삶 전체에 편재되어 있으면서 두 번 다시 반복되지 않는 그 자체의 성질이 있다.

‘하나의 경험’에서는 모든 연속적인 부분들이 갈라진 틈이나 매우지 않은 빈자리 없이 후속 되는 부분에 매끄럽게 흘러 들어간다. 경험 안에서 어떤 특성을 조금도 희생하지 않고 어떤 것에서 어떤 것으로 흐름이 이어진다. 한 부분이 다른 부분에 이르고, 이전의 것을 계속 이어나감에 따라 각각은 그 자체로 독특성을 띤다. 전체는 항구적으로 존재하지만, 서로 이어지는 국면들이 각기 다른 색채로서 특색을 드러내기 때문에 그것으로 다양한 모습을 지니게 된다. 예술작품에서는 서로 다른 행위들, 사실들, 그리고 사건들이 하나로 용해되어 융합된다. 하지만 그렇게 된다고 해서 그 각각의 특징이 사라지거나 상실되지 않는 ‘그 식사’, ‘그 폭풍’, ‘그 깨어진 우정’ 등과 같은 이름을 붙일 수 있는 ‘통일체’를 지닌다. 이것은 구성 부분들의 다양성에도 불구하고 그 전체의 경험에 편재된 하나의 단일한 성질이 있을 수 있기 때문이다.

실제로 사고의 경험에서 전체들은 하나의 결론이 명백하게 될 때만 드러난다. 하나의 결론에 도달한다면 그것은 끊임없는 예견과 축적이 드디어는 완성에 이르게 되는 움직임에 관한 결론이다. 하나의 ‘결론’은 따로 고립되어 있고 독립된 것이 아니라 그것은 한 움직임이 완결된 상태이다. 그리하여 ‘하나의’ 경험으로서의 사고는 그 자체의 미적 성질을 지닌다. 그것은 보통 우리가 미적이라고 생각하는 경험과는 다르지만, 단지 그 경험의 내용(재료)에 있어서 다를 뿐이다. 순수예술의 재료는 성질들로 이루어져 있다. 이론적 결론으로 이루어진 경험의 내용은 기호 혹은 상징이다. 기호 혹은 상징은 그 자체의 본질적인 성질을 가지지 않지만 다른 경험에서 성질로 경험되는 사물을 나타낸다. 그 차이는 대단히 크다. 엄격히 이론적인 예술이 음악처럼 쉽게 대중화가 될 수 없는 이유는 바로 그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경험 그 자체는 체계적이고 조직적인 움직임을 통하여 내적인 통합과 완성에 도달하기 때문에 만족감을 주는 정서적 성질을 지닌다. 이러한 예술적 구조는 직접적으로 감지되는 한 그것은 미적이다. 어떠한 이론적 활동도 이러한 성질로써 마무리되지 않는다면 하나의 통합된 사건(하나의 경험)이 되지 못한다. 말하자면 이지적 경험이 그 자체로 완성되기 위해서는 미적 특징을 지녀야만 하기 때문에, 우리는 미적인 것을 이지적인 경험과 분명하게 구분할 수

가 없다는 것을 뜻한다.

듀이는 모든 통합적 경험(integral experience)은 자체 내의 능동적인 에너지가 제 과업을 모두 수행했을 때만 멈추기 때문에 하나의 종결을 향하여 움직인다는 사실을 강조하였다.

에너지가 순환하다가 이렇게 종결되는 것은 정지와는 전혀 다른 것이다. 성숙과 고착은 각각 정반대의 극단에 있다. 분투와 갈등은 고통스럽다고 하더라도 경험을 발전시키는 수단으로 경험할 때 그 자체로서 즐긴 만하다. 왜냐하면 분투와 갈등은 단지 부수되는 현상이기 때문이 아니라 경험을 이끌어 가는 구성요소이기 때문이다. 모든 경험에는 무엇을 겪게 된다는 넓은 의미에서 무엇을 감내한다는 것이 한 요소로서 존재한다. 그것은 고통스러울 수도 있는 재구성을 의미한다. 따라서 쾌락을 가져다 주느냐 고통을 가져다 주느냐는 특정한 상황의 문제에 따른 것이다.

그러므로 듀이는 미적 성질이 경험을 정서적인 완전체(completeness)와 통일체(unity)로 특징짓는다고 하였다. 이러한 말은 어려운 문제를 야기시킬 수도 있다. 우리는 정서를 그것에 붙인 이름만큼이나 단순하고 압축된 것으로 생각한다. 우리는 마치 기쁨, 슬픔, 희망, 공포, 분노, 호기심 등은 각기 본래 완전히 만들어진 채, 장면마다 나타나는 일종의 실체(entity)로 다룬다. 그것은 다소간에 지속되기도 하지만 그것의 지속성, 즉 성장하고 생애를 지닌다는 것은 그것의 본질로서 적절치 않은 실체이다. 사실상, 정서는 그것이 참으로 의미 있는 정서라면, 움직이고 변화하는 복잡한 경험의 성질이다. 여기서 '의미 있는(significant)'이라는 말이 중요하다. 만약 그렇지 않으면 정서는 단지 당황한 어린 유아의 돌발적인 폭발에 지나지 않는다. 모든 정서는 극적인 것이라면 당연히 지녀야 하는 조건이며 극적인 상황이 발전해감에 따라서 변화한다. 보통 사람들은 때때로 첫눈에 사랑에 빠진다고 말한다. 그러나 그들이 빠지는 것은 어린 유아의 빠지는 것과 같지 않다. 이처럼 경험은 정서를 지닌다. 그러나 경험 안에는 특별히 정서라고 불리는 것이 따로 분리되어 존재하지는 않는다. 마찬가지로 정서는 움직이고 있는 사건과 대상에도 접해져 있다. 이처럼 정서는 병적인 경우를 제외하고는 개인적인 것이 아니다. 어떤 특정한 대상이 없는 정서조차도 그것이 접해져 있을 대상을 초월하

여 아무런 실제적 대상이 없는 상태에서 하나의 망상을 낳기도 한다. 따라서 정서는 분명히 자아의 소유물이긴 하지만, 그것은 자신이 바라거나 바라지 않거나 간에 어떤 결말을 향하여 사건이 움직이는 것에 관심을 두는 그러한 자아의 것이다. 부끄러울 때 얼굴을 붉히게 되는 것처럼 무서울 때는 순간적으로 펄쩍 뛴다. 그러나 이때의 겁을 내거나 부끄러워하는 것은 정서적 상태가 아니다. 그것은 그 자체로서 단지 자동적인 반사작용일 뿐이다. 그것이 정서적이기 위해서는 대상과 그 결말에 대한 관심을 포함하고 있는 포괄적이고 지속적인 상황의 부분으로 속해 있어야 한다. 무서움으로 펄쩍 뛰는 것도 위협적인 대상이 있어서 그것을 감당하거나 기피해야 한다는 것을 알거나 의식하게 될 때 비로소 정서적 공포가 된다. 또한 얼굴이 붉어지는 것은, 자신이 행한 바를 다른 사람이 불쾌하게 반응할 것이라고 연결시켜 생각할 때 수줍은 정서가 되는 것이다.

정서는 바로 이러한 것을 움직이고 결합시키는 힘이다. 정서는 적합한 것을 선택하여 그것을 정서의 색깔로 염색하고 겉으로는 서로 일치하지 않는 이질적인 재료들에 대하여 성질적 통일성을 부여한다. 그리하여 그것은 경험의 다양한 부분들 가운데서, 그리고 이 부분들을 통하여 통일성을 제공한다. 그 통일성이 이미 서술한 바와 같은 종류의 것일 때, 그 경험은 비록 두드러지게 미적 경험이라고 할 수는 없을지라도 미적 특징은 지니게 된다.

경험은 능동적 행위(doing)와 피동적 행위(undergoing)가 차례로 일어나기 때문이 아니라, 둘의 관계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형태(pattern)와 구조(structure)를 가지고 있다. 불에 손을 갖다대는 것은 경험을 하기 위하여 반드시 필요한 것이 아니다. 그 행위와 결과는 반드시 함께 지각된다. 이 관계야말로 의미를 부여하는 것이며 이 관계를 파악하는 것이 바로 모든 지력의 목적이다. 그리고 이 관계의 범위와 내용은 경험의 내용이 지니는 중요성의 척도가 된다.

결국 예술은 경험을 하나의 경험으로 되게 하는 능동적 행위와 피동적 행위 그리고 방출의 에너지와 흡수의 에너지의 관계를 그 형태 속에서 통합한다. 능동적 행위와 피동적 행위의 요소들을 서로 통합하여 조직하는 데 도움이 되지 않는 것을 모두 제거하기 때문에 그리고 그 요소들이 서로 침투하

여 통합하는 데 도움이 되는 국면과 특징을 선택하기 때문에, 그 결과적 산물은 하나의 미적인 예술의 작품이 되는 것이다. 무엇을 행하고 만드는 것이 예술적이라고 할 수 있으려면 그 결과를 보고서 그것은 제작의 과정에서 지각된 성질들의 통제를 받아 생산된 그런 것이라고 할 수 있어야 한다. 직접적인 지각의 경험을 통하여 즐길 것을 만들고자 하는 생산의 행위는 무의식적이고 통제되지 않은 활동이 진지 못하는 성질을 지니고 있다. 예술가는 그가 작업하는 동안 그 스스로 보는 사람으로서의 태도를 지니고 있다.

본질적으로 듀이는 '하나의 경험'이란 말을 '미적 경험의 일차적 단계'와 동의어로 사용하고 있다(Zeltner, 1975, p. 17). 물론 우리는 듀이에게 있어서 미적 경험의 일차적 단계가 곧바로 미적 경험은 아니지만, 그런 만큼 미적 경험의 일차적 단계(하나의 경험)는 순수한 예술 또는 이것과 유사하게 심사숙고하여 개발된 것들과 별도로 미적 성질을 소유한 인간의 지속적인 활동들을 나타낸다. 한편으로 미적 경험의 일차적 단계를 다른 식으로 표현하자면, 그것은 일상적 경험에 참여하여 미적 특성을 소유하는 일상적인 경험의 그러한 종류들이 되고 있다는 것이다. 듀이는 모든 일상적인 활동이 그 스스로의 완성을 위해 착수된 하나의 경험이 될 때 그것은 의도적으로 개발된 경험이 되고, 또 곧바로 미적 경험으로 불리어질 수 있음을 역설하고 있다.

통일성의 존재, 즉 하나의 경험의 특징은 그 구성 요소의 변이에도 불구하고 경험 전체를 휘감고 있는 확일성에 의해 구분된다. 따라서 듀이는 바로 통일성은 엄격히 정서적인 것도 실제적인 것도 아닐 뿐만 아니라 지적인 것도 아님을 강조하고 있다. 왜냐하면 이러한 구분들은 하나의 경험에 관해 이야기할 때만 기술되는, 즉 하나의 경험 이후 반성에 의하여 이루어지는 것이기 때문이다(Zeltner, 1975, p. 25).

2. 미적 경험

듀이가 『예술론』을 집필하게 된 중요한 동기는 일상적인 삶의 과정들과 미적 경험의 연속성을 복원하는 것이었다(Dewey, 1934, p. 10). 물론 이런 과제를 완성하기 위해 듀이는 그렇고 그런 예술 대상들에 대한 주목을 일시

중단하고, 경험의 일상적 힘들과 조건들로 되돌아가 그것들을 조사하는 데에서 시작하는 것이 필수적인 일이라고 생각하였다. 그러므로 이런 조건들을 다룬 이후에 미적 경험의 일차적인 단계(하나의 경험)에 대한 관념을 확장시킬 수 있을 것으로 가늠하였다. 일차적으로, 삶은 환경 안에서 진행된다. 경험은 인간들이 그들의 환경과 상호 작용을 하는 자연의 통로이다. 그러므로 삶은 단순히 환경 안에서 발생하는 것이 아니라 환경과의 상호 작용을 통해 발생한다.

따라서 유기체와 환경의 관계는 정적인 종류의 것이 아니다. 오히려 그것의 주요한 특징은 연속성과 역동성이다. 왜냐하면 삶은 실제로 계속 진행되고 있는 것이기 때문이다. 즉 그것은 의욕적이고도 진취적으로, 한마디로 능동적으로 계속 진행되고 있는 것이다. 또한 이러한 활동은 유기체가 불평형의 상태와 평형의 회복의 상황에 사로잡혀 있다는 사실의 표시이기도 한다. 그리고 만약 불평형의 상태가 너무 심하면 유기체는 기능을 멈춘다. 다시 말해서, 만약 유기체의 현재 상태와 그 잠재적인 회복의 간극이 너무 넓으면 그것은 기능을 잃어버린다. 그러나 유기체가 저항과 장애를 극복한다면 유기체는 상황의 의미를 통합시키고 그것으로 인해 확장된다.

결국 저항과 장애를 극복하고, 또 그렇게 함으로써 삶의 경험 속에서 통일성을 재확립하는 것은 미적인 것에 유사한 발아기적인 통합적 완성을 경험 안에 지니게 되는 것이다. 물론 삶의 계속적인 과정들은 불안정과 더욱 풍요한 안정의 재확립에 의해 구분된다. 그리고 이와 같은 밀물과 썰물은 행함과 겪음에 의해 특징지어지고 ‘리듬’으로 불리어지게 된다. 아울러 환경과의 통합이 상실되는 경우들을 질적으로 느끼게 되는 것 또한 바로 이 지점이라고 말할 수 있다. 한편 정서는 실제적이든 혹은 절실한 것이든 간에 하나의 단절에 대한 의식적 표시이다. 그러므로 그러한 ‘감정’은 모든 인식적인 개입에 선행한다. 물론 예술과 미학에서 정서의 역할은 종종 최상의 것으로 가늠되어져 왔다. 그러나 우리는 경험이 질적이거나 또는 감정적인(affective), 나아가 인식적인 요소들의 하나의 조합이라는 사실을 깨닫지 않으면 안 된다. 왜냐하면 삶의 경험의 조건들은 질적이고도 인식적으로 채택되고 있기 때문이다(Dewey, 1934, pp. 16-17).

‘미적 경험’은 경험의 질적 성격이 어떤 식으로 구조화되었을 때, 그것이 경험의 지배적이고도 결정적인 특징은 되지만 경험에 부수적인 특징이 되는 것은 아닌 그러한 경험들을 의미한다. 물론 미적 경험은 심사 숙고하여 혹은 의도적으로 다듬어진 경험을 뜻한다. 여기서 ‘미적 경험’과 ‘하나의 경험’을 구분 지어 보자. 예를 들어 어떤 문제를 풀고 있는 수학자는 하나의 경험을 가질 수 있다. 즉 그는 미적 성질을 소유하는 하나의 경험을 가질 수 있다. 그러나 그가 미적 경험을 가진다고 주장하는 것은 잘못이다. 왜냐하면 그 사실은 미적 경험의 일차적 단계와 의도적으로 다듬어진 단계의 구성 요소들은 구별하는 데 도움을 주지 않을 것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중요한 것은 미적 경험의 일차적 형식들과 의도적으로 개발된 형식들 모두에 미적 성질이 출현하고 있다는 사실이다. 그러나 하나의 형식에서 출현하고 다른 형식에서는 출현하지 않는 것은 강조 혹은 의향에 관계되고, 어떤 종류의 질료 및 일차적 단계 안에서 이미 발견되어진 요소들의 구성 조직(institution)에 관계된다. 그런 만큼 더욱 위대한 인식적 특징 혹은 질적 특징을 소유한 경험의 형식들을 식별하는 일은 서로 다른 강조 지점을 통해서 혹은 의향을 통해서 대체로 가능하다는 사실이다. 결국 핵심적인 문제는 정상적인 생활 과정과 함께 전통적으로 순수 예술의 특징이 되어왔던 미적 경험을 재통합시킴으로써 비로소 하나의 경험과 의도적으로 개발시킨 단계 속에 있는 경험의 미적 성질을 우리가 추적할 수 있다는 사실이다. 물론 이렇게 함으로써 우리는 그 상이한 유형들을 더욱 깊이 이해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모든 경험의 연속성을 다시 강화시킬 수 있게 된다. 만약 수학자가 다른 탐구를 위한 도구로서가 아니라 문제 그 자체를 위한 문제 해결을 꾀하는 곧 경험의 인식적인 것과 반대가 되는 하나의 지배적인 질적 성격을 지닌다면 그러한 경험은 미적 경험이라 하겠다. 물론 수학 문제를 풀이하는 것과 그림을 보는 것, 혹은 음악을 듣는 것 사이에는 차이가 있다. 하지만 그 차이는 적용된 매체에 불과하고 직접적인 질적 경험에 대한 매체의 연관성에 불과하다. 그러므로 지배적인 질적 유형은 ‘미적 경험’으로 불리어 질 수 있다(Dewey, 1934, p. 18).

그러나 듀이는 모든 일상적인 활동이 그 스스로의 완성을 위해 착수될 때

그것은 의도적으로 개발된 경험이 되고, 또 곧바로 미적 경험으로 불리어질 수 있음을 지적하고 있으나 그것을 미적 성질을 소유할 수 있는 또 다른 활동을 위한 도구적인 것이 되는 활동을 일차적으로 취하는 것이므로 미적인 경험인 것으로 불리어질 수는 없다고 하였다. 왜냐하면 그것은 질적인 궁극성이 아니기 때문이다.

불확정적이고 문제가 되는 상황에서 인간 유기체는 환경과 역동적이고 끊임없이 상호작용하고 있다. 그러나 종종 유기체를 도태시키거나, 불평형의 상태에 있게 하는 환경은 혼란스럽거나 문제 있는 상황들로 불리어진다. 문제 상황들이 유기체의 지속적인 활동을 붙잡아 그 평형을 잃게끔 하지만, 유기체는 문제 상황이 출현하고 있다는 것을 인식하기 전에, 불확정적 상황을 의식적으로 인지하는 질적 긴장을 겪고 있다. 물론 여기서 ‘불확정적’이라는 것은 진행중인 유기체의 활동이 방해를 받고, 나아가 그렇다라고 인정하는 것이 질적으로 느껴짐을 뜻한다. 따라서 이것은 인식적 결정에 앞서 있고, 또 그러한 인식은 문제가 출현하고 있느냐 아니냐를 결정한다. 그리고 만약 사정이 그렇다라고 한다면 유기체는 문제 상황과 직면하게 된다. 그러나 모든 불확정적 상황들이 문제 상황을 질화시키지 않음은 분명하다. 따라서 듀이가 지적하고 있듯이, 이름들의 다양함은 불확정적인 상황을 특징짓는 것인바, 말하자면 이름들이 다양하다는 것은 불확정적인 상황을 혼란스럽고, 귀찮고, 모호하고, 불명료하고, 갈등을 일으키는 경향들로 가득 차 있는 상황으로 이름 붙이는 것이라는 사실이다(Dewey, 1934, p. 57).

유기체가 문제 상황에 참여하고 의식적으로 지각할 때, 그들의 철저한 통합은 경험의 ‘하나의 경험’을 산출한다. 이러한 과정에서 수단과 목적이 즉 도구적인 것과 하나의 완성이 서로서로 상호침투하고 하나의 전체적 경험을 제공하는 방식을 지각하는 과정이 된다. 실제로 수렴적 완성의 단계는 특수하게 구조화된 모든 그 이전 단계의 통합이고, 질적으로 경험되어진 것이다. 따라서 미적 경험은 의도적으로 개발된 이러한 질적인 궁극성들이 될 것이다. 그러면 경험 안에서 의미는 어떻게 발생하는가. 이 때 의미는 하나의 경험으로 이루어진다고 말할 수 있다. 바로 이때에 수단과 목적은 그 경험에 의미 심장한 어떤 것이 부가되는 그런 방식에 관련되는 것으로 이해된다. 하

나의 완성 경험의 상황은 그것의 출발과 끝이 분명하다. 따라서 상황의 모든 역사적 단계들은 그 하나 하나의 단계 내에서 통합되기 때문에 하나의 경험은 통일성과 개성을 가지게 된다. 이처럼 수렴적이고 하나의 모든 경험은 의미를 소유하게 된다. 더욱이 경험의 다른 유형들 모두는 하나하나 통일된 구성을 하고, 자연과의 상호 교섭으로 의미는 확장되고 한층 강화된다. 결국 수렴적 완성의 경험을 거쳐서 경험은 증대되고 강화되며 활기 있게 된다. 따라서 생활 경험의 환경이 미적 성질을 소유하는 것이 가능해진다(Zeltner, 1975, p. 21).

그리고 미적 성질은 느껴진다. 아마도 누군가는 그러한 감정을 정서적 능력의 산물로서 혹은 그것이 이성의 능력에 속한다고 할 때 지성과 함께 이루어지는 것으로서 분류시키고자 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못하다. 의미들은 사물들과 사건들의 알려진 연계성들과 관계들이다. 즉 어떤 사물이나 사건들과 함께 참여하는 명백한 상호 작용들이다. 비록 의미들이 인식적 투입 내용(import)을 지닐 수 있다고 하더라도 그것들은 질적인 궁극성들로서 구분될 수 있기 때문이다(Zeltner, 1975, p. 25).

하나의 미적 경험에서 지배적인 인자는 질적인 것이자 최종적인 것이 되고 있다. 그리하여 예술은 '정서'를 취급함으로써 그 스스로를 드러내게 된다. 그러나 이 사실은 결코 지적인 성격이 그것에 부재함을 뜻하지는 않는다. 왜냐하면 질적이거나 인식적인 성격 어느 한쪽에 대한 강조는 예술과 과학을 구별하는 하나의 인자에 불과하기 때문이며, 그리고 그러한 구별은 종류상의 차이가 아니기 때문이다. 과학자들의 활동들이 또 다른 의미들을 유도하는 도구적인 것이라는 사실과는 반대로 예술은 질적인 궁극성들을 산출하기 위해 심사 숙고하여 개발된 것이다. 그러나 사유의 하나의 경험(미적 경험의 일차적 단계)이 분명히 미적 성질을 소유할 수 있음을 깨닫는 것이 중요하다. 왜냐 하면 사유는 정연하고 조직화된 운동을 통해 이루어진 내적인 수렴과 충만을 소유하고 있음으로 해서 미적 성질을 소유할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그것은 대체로 상이한 질료들과 상이한 의향의 작용으로서의 다른 경험들, 즉 미적으로 고려된 경험들과는 다르다. 그래서 듀이는 다음과 같이 강조하고 있다.

순수 예술의 질료는 성질들로 구성된다. 물론 지적 결론을 소유하는 경험의 질료는 그들 자신의 고유한 성질을 지니고 있지 않는 기호들 혹은 상징들이지만, 경험 속에서 질적으로 경험될 수도 있는 것들을 표상하고 있다(Dewey, 1934, p. 38).

듀이의 관념을 이해하는 부분에서의 어려움은 ‘정서적 기능으로서의 성질’과 ‘지적 기능으로서의 의미’에 대한 전통적인 이원론적 이해의 결과로 빚어진다. 왜냐하면 이러한 이원론은 반성적 분석의 소산이지, 경험을 정확하게 기술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는 지적 때문이다. 그런 만큼 ‘의미’는 단순한 인식적인 문제가 아니며, 그것은 관련성 속에서 혹은 특수한 관계들 속에서 작용하는 직접적인 성질들의 총합인 것이다(Zeltner, 1975, p. 26).

물론 ‘예술적’이란 말은 주로 생산이나 제작의 행위와 관련되어 사용되고, ‘미적인’이란 말은 감상, 향유 또는 지각과 관련되어 주로 사용된다. 물론 회람인들은 예술적인 것과 미적인 것을 분리시켜 존재의 관점에서 후자에 더 큰 지위와 중요성을 부여했다. 말하자면 예술적인 것, 즉 생산은 존재의 기능이었고 그것은 자연의 불확정성들과 편파성들을 포함하고 있었다.

그러나 미적인 것은 애초부터 예술적인 것과 하나로 묶여 있는 것이다. 그러므로 ‘미적인 것’은 단순히 수동적인 ‘겪음’에만 관련되지 않는다. 왜냐하면 수용성은 제작자의 활동들과 필적할 만한 활동들을 포함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수용적인 것이 되는 것은 “객관적인 충만으로 누적되는 일련의 반응 행위들로 구성된 하나의 과정이다. 만약 그렇지 않으면 지각이 아닌 인정이 존재한다”(Dewey, 1934, p. 52). 물론 인정은 물지각한 것이다. 그런 만큼 인정은 발전할 여지가 없게 된다. 그러므로 여기서 ‘발전’이 요구된다. 비록 미적인 것이 지각자, 예술적인 것이 생산자라고 하지 않을지라도 그는 실제로 경험을 강조하고 있다. 이것이 바로 재구성의 맥락 속에서의 ‘행함’의 의미이다. 그러므로 지각하는 것은 알도록 만들어진 새로운 의미들을 용인하는 것이다. 그리고 이것은 의식을 재구성하려는 노력을 요구한다.

V. 맺는 말

듀이는 프래그머티즘 철학의 완성자로서 교육철학 뿐 아니라 『경험으로서의 예술』을 다룬 미학을 그의 철학에 정점에 두고 있다. 그가 이야기하고 있는 경험은 고대와 근대의 경험 철학과는 그 성격을 달리 하고 있다. 즉 경험을 인간을 한 유기체로서의 살아갈 때 끊임없이 변화하고 자연과 상호 작용하여 경험을 재구성하여 성장하며, 동시에 이러한 경험의 재구성으로 자연과의 연속성을 회복하게 된다는 것이다. 그러므로 듀이의 예술은 인간의 삶과 자연과의 연속성을 회복함으로써 자연의 질서를 직접적으로 경험하는 것을 골자로 하고 있다. 곧 예술은 조작과 자연적인 힘이 가장 완전하게 통합되는 것으로서 듀이의 예술 경험은 경험의 정점(climax)일 뿐만 아니라 자연의 절정사건(culminating event)이며, 또한 그의 자연주의 세계관의 정상에 있다.

이처럼 듀이는 예술이 인간의 삶과 자연 속에서 시작되어야 함을 강조하였고, 예술 경험이 인간과 자연과의 연속성을 가능하게 하는 근원으로 보았다. 따라서 『예술론』에 제시된 경험의 이해는 곧 인간의 이해요, 삶의 과정이며 나아가 자연과 하나가 되어 통일성과 완성을 이루는 완결체이다. 동시에 이러한 과정에서 나타나는 하나의 경험과 미적 경험은 듀이 예술 경험의 바탕이 될 뿐 아니라 음악교육에서 음악적 성장과 향유를 위한 근원적인 문제와도 관련이 된다.

그러므로 듀이의 예술 경험의 관점에서 볼 때, 음악 경험은 하나의 단순한 음악 활동을 뜻하는 것이 아님이 자명하다. 그것은 행함과 겪음이 하나의 통일체와 완결을 드러내는 하나의 경험이며, 풍부한 직접적 질적인 구조화와 의도적으로 다듬어진 미적 경험이다. 또한 정서를 결합하는 힘으로 하나의 의미를 생성한다. 이러한 예술 경험은 음악경험을 강조하고 있는 우리의 음악교육에서 학생의 음악적 성장과 경험을 위해 재고되어야 할 것임이 분명하다.

참 고 문 헌

- 김태길 (1990). *존 듀이 사회철학*. 명문사.
- 노진호 (2002). *존듀이의 교육이론: 반성적 사고와 교육*. 문음사.
- 오병문 (1983). *John Dewey 철학에 있어서의 경험에 관한 연구*. 박사학위 논문. 동국대학교 대학원, 서울.
- 이경후 (1993). *듀이의 예술론과 예술교육*. 박사학위논문. 이화여자대학교 대학원, 서울.
- 임한영 (1977). *교육 사상의 비교 연구*. 배영사.
- 정건영 (1995). *듀이 교육론의 이해*. 문음사.
- 정순복 (1994). “존듀이 철학에서의 ‘질적 직접성’의 문제”. *미학, 한국미학화*, 19.
- 조성술 (1985). *존듀이 철학에 있어서의 경험의 구조에 관한 연구*. 박사학위논문, 전북대학교, 전북.
- 최한수 (2000). *아동중심교육과 존듀이*. 문음사.
- Richard, Shusterman. (2002). *프라그마티스트 미학* 김광명 역. 예전사.
- Alexander, Thomas M. (1987). *John Dewey's Theory of Art, Experience, and Nature*. State University of New York Press.
- Bernstein, R. J. (1966). *John Dewey*. California: Ridgeview Company.
- Chan, Stevern M. (1977). *New Studies in the Philosophy of John Dewey*. New Hampshire: The University Press New England Hanover.
- Herman, H. Horne. (1969). *The Democracy Philosophy of Education*. New York: The Macmillan Company.
- John Dewey. (1916). *Democracy and Education*. New York: macmillan Co., Collier Books.
- John Dewey. (1922). *Human Nature and Conduct : An Introduction to Social Psychology*. New York: The Modern Library.
- John Dewey. (1929). *Experience and Nature*. Chicago: Open Court Publishing Co.

- John Dewey. (1934). *Art as Experience*. New York: G. P. Putnam's Sons.
- John Dewey. (1938). *Experience and Education*. New York: macmillan Co., Collier Books.
- John Dewey. (1938) *Logic : The Theory of Inquiry*. New York: Henry Holt and Company.
- John Dewey. (1948). *Reconstruction in Philosophy*. Boston: Beacon Press.
- John Dewey. (1960). "From Absolution to Experimentalism", On Experience, Nature, and Freedom, In Richard J. Bernstein. (Eds.), New York: The Liberal Arts Press.
- John Dewey. (1972). *The Quest for Certainty: A Study of Relation of Knowledge and Action*. Boydston: Carbondale and Edwardsville. Southern Illinois University Press.
- John P. Wynne. (1963). *Theory of Education; An Introduction to the Foundations of Education*. Harper and Row. New York.
- Winn R. B. (1959). *John Dewey: Democracy and Education*. New York: Philosophical Library.
- Zeltner, P. M. (1975). *John Dewey's Aesthetic Philosophy*. Amsterdam: B. R. Gruner.

ABSTRACT

A Study on the represented Meaning in John Dewey's 『Art as Experience』

Kim, Gi-Su

The philosophy can be naturalistic metaphysics, and naturalistic humanism. The central point of his philosophy is the problem of experience. He regards human as a living being. Dewey's aesthetic theory is organically related to his general philosophic position. The primary focus being the relationship between experience and nature, human being and environment. For Dewey, all experience arises from nature and is inextricably bound up with natural processes. In order to restore the continuity of aesthetic experience with those processes of ordinary experience, the continuity of experience in and of nature must be appreciated. Dewey's aesthetic theory is implied by and a key to his entire philosophic system, In effect it is a showcase of naturalistic thinking.

Dewey's contributions are many. His singular achievement is a theory which provides for the understanding of fulfilling and unifying experience as a product not only of the fine arts. but of experience which is rich by virtue of cohesion and wholeness. When we are made aware of aesthetic quality in ordinary experience, we are armed with the materials to implement activity such that it is capable of further wholeness and

integration. The fine arts are merely a conspicuous example of aesthetic experience. Dewey's theory holds out greater promise—the life experience can be enlarged through an understanding of the fact that life when truly lived is art.

Therefore the experience in music education is not simple activity, but the experience with thinking. Thinking guides music activity to real music experience. so without thinking music experience is only of meaningless activity. We must require having an experience, aesthetic experience for a real music experience.